

한국의 전문가 집단의 국제인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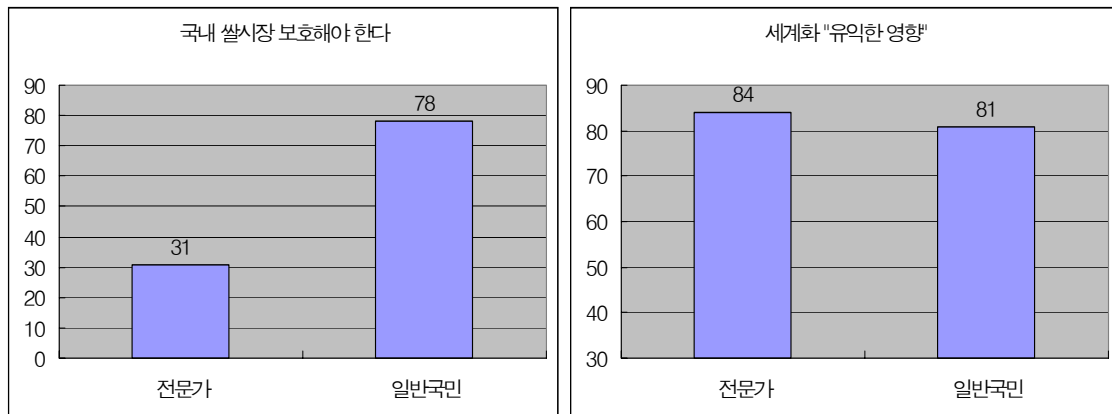
■ 전문가, 세계화와 국제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지만 자위능력은 갖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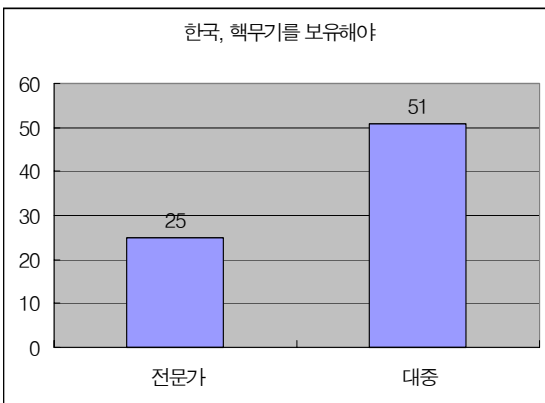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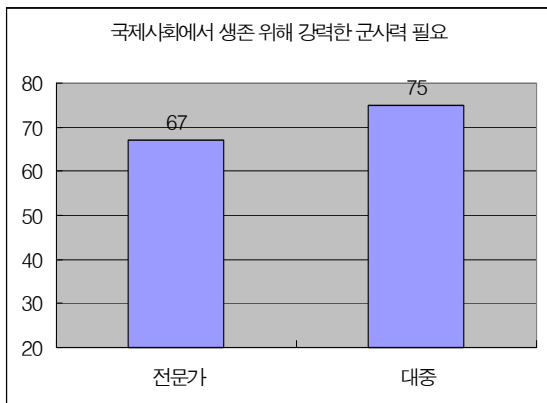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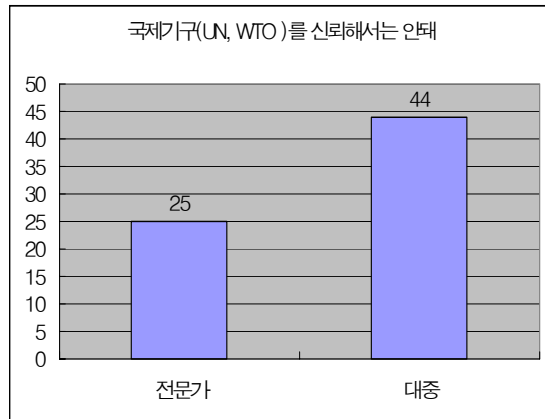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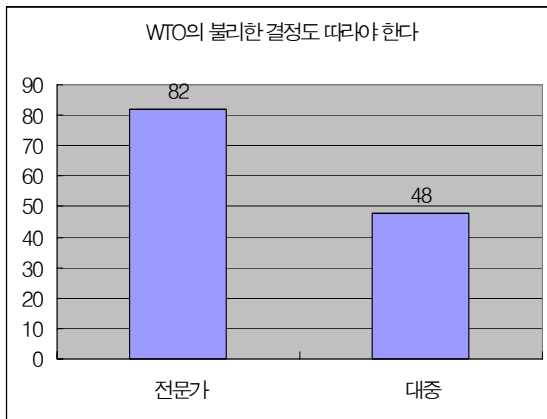
“WTO의 한국의 불리한 결정에 따라야”, 전문가 82%, 일반국민 48%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지정학적 조건이 취약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화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 84%가 유익하다고 답했으며, 국제적 표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도 일관적이다. 국내 쌀시장에 대해 일반국민 78%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전문가 집단은 66%가 이에 반대한다. ‘어떤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 한국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하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48%만이 동의할 했지만, 전문가 집단의 82%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국제제도에 대한 신뢰여부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UN이나 WTO같은 국제기구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국민의 44%정도가 동의하는 반면 전문가집단의 경우 25%만이 이에 동의한다.

전문가 집단은 국제무대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국가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응답자의 67%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세계화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국경을 허물고 상호의존의 경향을 강화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무대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익경쟁의 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51%)과 달리 전문가의 25%만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 관련 그래프들





■ 주변 강국에 대한 인식

미일 호감도가 일반국민에 비해 높아, 영향력에서는 미국에 이어 북한이 2위, 호감도, 유용도에서 미국이 1위, 북한이 꼴찌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영향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핵문제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국의 동맹체제 변환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진단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해 다면적으로 답하기 위해 호감도, 한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 안보에 대한 유용도라는 세 문항을 가지고 각 국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호감도의 경우 0~100점 척도였고, 영향력의 경우 0~10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한국안보에 대한 유용도는 ‘매우 위협’, ‘약간 위협’, ‘영향 없음’, ‘약간 유용’, ‘매우 유용’이라는 답변에 대해 각각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을 부여하여 역시 100점 척도로 바꾸어 계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호감도(65점), 영향력(77점), 유용도(60점)으로 한국 외교안보에 유익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북한은 영향력 부문에서 54점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했을 뿐 호감도(46점), 유용도(50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일반국민 조사에서는 북한은 영향력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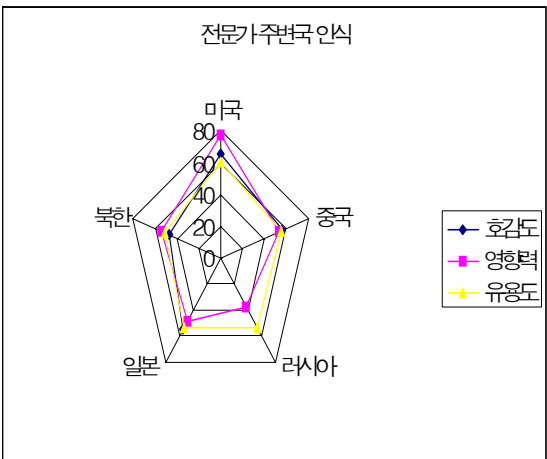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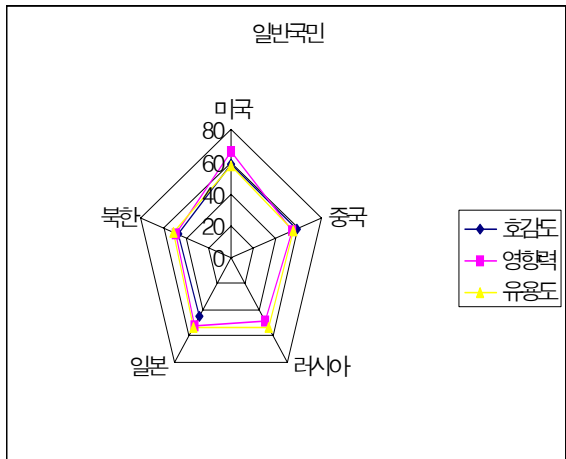
에서도 최하위(48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호감(56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용도에서도 55점으로 미국 다음으로 한국 안보에 유용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영향력에서는 53점으로 북한의 뒤를 이었다. 러시아 일본의 경우 한국 안보에 비교적 낮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러시아 38점, 일본 48점), 유용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약간 낮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전문가그룹의 경우 일본 호감도가 55점으로 일반국민의 45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반일감정으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교안보의 중요행위자로서 무엇보다 미국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 러시아에 비해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차이는 미국과의 차이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싫어하면서도 북핵 문제 등으로 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 관련 그래프와 표들

전문가	호감도	영향력	유용도
미국	65	77	60
중국	56	53	55
러시아		38	54
일본	55	48	54
북한	46	54	50

일반국민	호감도	영향력	유용도
미국	58	66	57
중국	58	54	55
러시아		48	53
일본	45	52	53
북한	46	48	51



■ 외교정책방향을 이념적 양극화, 전문가 > 일반국민

일반국민의 46%가 중도, 전문가의 16%만이 중도

한편, 대미 외교안보정책을 두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사회갈등이 다원적 경쟁의 한 단면으로서 무조건 경원시할 수 없지만,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을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반미여론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국민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보다 전문가 집단내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25%가 진보, 46%가 중도, 40%가 보수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집단의 경우 진보 38%, 중도16%, 40%가 보수라고 응답하여 양극화된 응답자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양극화 경향은 주로 주요 외교적 쟁점에 대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31%가 ‘미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을 선호한 반면 ‘현재의 수준 지지’는 32%, ‘한미동맹의 강화 지지’는 응답자의 37%를 기록했다. 반면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는 ‘자주외교’에 31%, ‘현재의 수준지지’ 11%, ‘한미동맹 강화’입장이 46%로 중도적 견해가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편으로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전문가적 안목과 분석능력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 수준에서 안보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실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내의 갈등이 국론분열을 증폭시킨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여론 주도집단내의 갈등이 전사회적 양극화로 확대해석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반미냐, 친미냐의 갈등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의 개선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론 주도집단 내의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관련 그래프들

